**<준비물>**

자물쇠, 동전지갑, 과도, 슬리퍼, 핫팩, 각자 이어폰, 돼지코, 미니돗자리(바티칸박물관)

**<면세점 쇼핑>**

필로소피 비타민C 파우더, (어메이징그레이스 시향) 레스포삭, 정관장 홍삼 , 비오템 수분크림, 빌리프 true cream moisturizing, 로레알 수분크림, 헤라 미쿠, 베네틴트, 랑콤 땡미라클 p01 추천(내꺼 확인), 레스포삭, 선그라스

**<유럽내 항공편 및 일정 fix>**

**<유로스타>**

유로스타 3시간이면 파리도착. 유로스타가 편하지만 비쌈 (19만원)

기본이 200 유로이고 당일가는 400유로도 함.

런던 -> 파리 (유로스타, St. Pancras – Paris nord)

한두달전에 예약해도 충분. 저가예약시 환불안됨. 예약조건에 그렇게 써있음

사려는 표가 오픈되어 있으면 빨리 사는게 나음. 오르면 올랐지 싸지지 않음. (내리는 경우있음)

시간대에 따라 틀림. 유로스타 탈 때 결제한 자기카드 보여줘야 함.

파리 -> 베니스 (이지젯 . 샤를로 드골 -> 마르코폴로);

베니스-> 로마 (트랜 이탈리아, St. Lucia(산타루치아역, 본섬 -> Termini)

저가항공 검색은 스카이스캐너. 2.5개월전이 저렴. 되도록 일찍 사야 저렴.

베니스에서 로마가는 이딸로. (자리 불편함. 프로모션이 많음 1+1. 37유로

런던 3박, 파리 3박, 베니스 1박(베니스가 생각보다 볼게 많지 않음)

유로자전거나라 (현재 도슨트로 유적지등 설명들음)

런던 in 로마 out ? – 교통과 숙박, 현지투어, 에펠탑만 예약해 놨고 유랑까페 올라오는 글 읽고 있음.

이탈리아내에는 기차추천, 테르미니 깊숙이 들어가서 일정에 도움

**<추천도서>**

루브르박물관, 대영박물관 (조성자)

**<호텔예약사이트>**

먼저 트립어드바이저에서 후기검색후, 호텔스닷컴이나 아고다에서 예약

런던; 이비스런던 (유스턴역; 교통좋고 깔끔해서 좋음. 조식도 좋음. 유로스타타는 역이 바로 다음 역

버팅검궁전 근위병교대식 격일로. 뮤지컬(예약사이트통해서 예약번호만 받아서 티켓팅

대영박물관

\오이스터카드 충전→ http://theatermonkey.com

**[출처]** [잊기전에 쓰는 런던 여행 후기!(8/8~12) ([유랑]유럽여행의든든한동반자)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/3459627) |**작성자** [천로역정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.cafe?iframe_url=/CafeMemberNetworkView.nhn%3Fm=view%26memberid=supremajor)

→ http://theatermonkey.com

**[출처]** [잊기전에 쓰는 런던 여행 후기!(8/8~12) ([유랑]유럽여행의든든한동반자)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/3459627) |**작성자** [천로역정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.cafe?iframe_url=/CafeMemberNetworkView.nhn%3Fm=view%26memberid=supremajor)

→ http://theatermonkey.com

**[출처]** [잊기전에 쓰는 런던 여행 후기!(8/8~12) ([유랑]유럽여행의든든한동반자)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/3459627) |**작성자** [천로역정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.cafe?iframe_url=/CafeMemberNetworkView.nhn%3Fm=view%26memberid=supremajor)

파리; 샹젤리제거리 (콩코드광장에서 개선문까지), 개선문, 에펠탑, 루브르박물관,

이태리;로마패스(버스, 지하철) 2월의 베네치아 멋져요. 로마시내(콜롯세움(바로 옆에 포로로마노라고 고대유적지) 보고 지하철타고 스페인광장내림, 포로로마노, 판테온, 진실의 입) 남부투어(나폴리, 소렌토, 아말피, 카프리)

베니스(개인적으로 피렌체가 더 좋았음. 베니스가 더 좋단 사람도 있고. 베니스는 하루면 충분

부라노, 무라노, 탄식의 거리, 성마르코성당+ 광장, 본섬

**<호텔>**

* 런던; premier inn 3성급으로 좋음(프리미어 인 세인트 판크라스, 주요관광지 가까움, 대영박물관 걸어감) 프리미어 인 켄싱턴 올림피아가 얼스코트 역에서 가까와요.  
  방 넓고, 친절하고, 조식도 다른 지점에 비해 맛있었어요.  
  가격도 시기만 잘 맞으면 20만원 미만에 가능하구요.

**[출처]** [런던 호텔에서 아이동반하면 무조건 3인실 예약인가요? ([유랑]유럽여행의든든한동반자)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/3277673) |**작성자** [산소거얼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.cafe?iframe_url=/CafeMemberNetworkView.nhn%3Fm=view%26memberid=ljysanso)

얼스코트역도 교통좋음. 피카딜리 라인 (프리미어인 켄싱턴 올림피아가 얼스코트역 가까움. 방넓고 친절하고 조식좋고. 3월말에 16만원대

영국계 저가체인호텔 알려드려요

트래블로지 http://www.travelodge.co.uk (4인용 패밀리룸 가격이 29파운드)

프로모션 할때 29 파운드에도 나오는 호텔이니 홈피 첵~잘 하셨다가 10만원 이하일때 예약~

* 특히 코벤트 가든 근처 트래블로지는 왠만한 관광지는 도보도 가능합니다. - 대영박물관, 자연사박물관, 내셔날갤러리, 트라팔가 광장, 웨스트민스턴 사원, 빅벤 등등.. 저녁에는 라이언 킹 뮤지컬도 봤답니다. 패밀리룸(4인) 가격이 29파운드 내외면 다소 시설이 세련되지 못한 것은 감안할 수 있더라고요. 대신 파리 호텔은 조금 럭셔리한 곳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? 저희는 작년 여름에 다녀오고 내년 겨울에 다시 코벤드가든 트래블로지 예약했습니다~
* **[출처]** [아이와 머물 파리와 런던 호텔?? ([유랑]유럽여행의든든한동반자)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/1553872) |**작성자** [서윤사랑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.cafe?iframe_url=/CafeMemberNetworkView.nhn%3Fm=view%26memberid=minanju)특히 코벤트 가든 근처 트래블로지는 왠만한 관광지는 도보도 가능합니다. - 대영박물관, 자연사박물관, 내셔날갤러리, 트라팔가 광장, 웨스트민스턴 사원, 빅벤 등등.. 저녁에는 라이언 킹 뮤지컬도 봤답니다. 패밀리룸(4인) 가격이 29파운드 내외면 다소 시설이 세련되지 못한 것은 감안할 수 있더라고요. 대신 파리 호텔은 조금 럭셔리한 곳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? 저희는 작년 여름에 다녀오고 내년 겨울에 다시 코벤드가든 트래블로지 예약했습니다~
* **[출처]** [아이와 머물 파리와 런던 호텔?? ([유랑]유럽여행의든든한동반자)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/1553872) |**작성자** [서윤사랑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.cafe?iframe_url=/CafeMemberNetworkView.nhn%3Fm=view%26memberid=minanju)특히 코벤트 가든 근처 트래블로지는 왠만한 관광지는 도보도 가능합니다. - 대영박물관, 자연사박물관, 내셔날갤러리, 트라팔가 광장, 웨스트민스턴 사원, 빅벤 등등.. 저녁에는 라이언 킹 뮤지컬도 봤답니다. 패밀리룸(4인) 가격이 29파운드 내외면 다소 시설이 세련되지 못한 것은 감안할 수 있더라고요. 대신 파리 호텔은 조금 럭셔리한 곳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? 저희는 작년 여름에 다녀오고 내년 겨울에 다시 코벤드가든 트래블로지 예약했습니다~

**[출처]** [아이와 머물 파리와 런던 호텔?? ([유랑]유럽여행의든든한동반자)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/1553872) |**작성자** [서윤사랑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.cafe?iframe_url=/CafeMemberNetworkView.nhn%3Fm=view%26memberid=minanju)특히 코벤트가든근처 트래블로지(일박당 80. 웬만한 관광지 도보가능. 대영박물관, 빅벤, 트라팔가광장, 내쇼날갤러리

Hampton by Hilton waterloo (3개월전 예약, 8박에 730파운드); 그 기간에 4인가족 가능한 객실없음.

노보텔 런던 웨스트(해머스미스역) 나 홀리데이 인 ; 둘다 비슷. 노보텔은 청소년 조식무료. 10/12일 현재 호텔스닷컴에서 무료취소 조건으로 177K.

(애들 데리고 갈 만한 호텔은 노보텔뿐.나머지는 방을 더 잡으라고 하거나 스위트룸 권함)

로마; 로얄산티나 좋음. 메트로로 바티칸 (투어 8시 시작)까지 이동.

골뱅이호텔(조선족 아저씨가 운영. 한식)

로마 camelia hotel; 다락방 멋진 패밀리룸을 23만원에

프리미어 인 http://www.premierinn.com/

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<http://www.ihg.com/holidayinnexpress/hotels/us/en/reservation?scmisc=header_6c>

파리 노보텔 보지나르; 경찰서앞. 전철 3분 거리. 시내 관광지 도보로 가진 못해도 전철이 가까워 접근성좋음. 소파베드에 애들 자고 (푹신). 7박에 140만원. 12유로로 택시타면 루브르감

파리 best western ;, 개선문에서 도보로 10분. 조식없음

\로마 로얄산티나 호텔; 다 만족

로마 piazza gesu suite; 비싸지 않고 트레비등과 가까움.

베니스; 길이 복잡함. 숙소가 역에서 가까워야 함. 본섬이 산타루치아역.

* Messtre 행 마지막 기차: 23:4, 23:15, 24:04, 24:08 (그전에는 20 ~ 30분 마다)
* **[출처]** [베니스 호텔골라주세요 ([유랑]유럽여행의든든한동반자)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/3571159) |**작성자** [써연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.cafe?iframe_url=/CafeMemberNetworkView.nhn%3Fm=view%26memberid=soone1207)Messtre 행 마지막 기차: 23:4, 23:15, 24:04, 24:08 (그전에는 20 ~ 30분 마다)

**[출처]** [베니스 호텔골라주세요 ([유랑]유럽여행의든든한동반자)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/3571159) |**작성자** [써연](http://cafe.naver.com/firenze.cafe?iframe_url=/CafeMemberNetworkView.nhn%3Fm=view%26memberid=soone1207)메스트레행 마지막 열차 자정까지([www.bahn.dewww.bahn.de](http://www.bahn.de))

메스트레 플라자 추천. 메스트레역에서 공항까지 30분

메스트레 역 근처 델피노 추천 (호텔 바로 앞에 베니스들어가는 버스)

메스트레는 베니스 본섬과 9키로 떨어져있음

10만원 더 주고 본섬에서 잘 걸 후회. 티켓팅하고 줄서고 시간낭비. 1박 2일이면 본섬 추천

Hotel san gallo; 위치는 환상이지만(산마르코 광장 옆) 엘리베이터 없어

호텔 산 줄리안; 128유로

아를레키노; 깨끗하고 친절하고 좁음.

Hotel plaza 메스트레 (쥬니아빠); 메스트레 바로 앞(못 찾으면 그 사람이 문제). 산타루치아가는 2번 버스가 바로 앞에 있음. 공항하는 버스가 호텔앞에 있음. 최고의 실내공간 (리모델링)